



조계종 포교원·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식민지시대 만주 이주민의 서러운 삶 묘사

우리말 꼭꼭 씹어 먹기

산마다 저렇게 단풍이 아름다운 것은 긴 장마와 무더위를 견디 나뭇잎들이 '독한 여름'을 견뎌 온 것을 축하 받는 것이라 생각해요. 누구에게나 시련은 있고 그 시련을 견디 사람은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되지요. 학생시절에 받는 고통은 무엇일까요?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장 크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고통으로 받아들인다면 고통이지만 '당연한 일'로 받아들인다면 보다 좋은 결실을 얻기 위한 길도 찾아질 겁니다. 저 어김이 없는 자연의 흐름을 보면서 열심히 일하고 자연을 배워보는 것도 좋은 일이지요. 가을엔 하늘을 바라보는 날이 많이 있었으면 해요. 바쁜 걸음을 조금 늦추고 자, 오늘은 가을 하늘을 올려다보기도 해요.

겹사돈: 이미 사돈 관계에 있는 사람끼리 또 사돈 관계를 맺는 사이. 또는 그런 사람.

눈썰미: 한두 번 보고 곧 그대로 해내는 재주. (동환이는... 장사에는 도무지 눈썰미가 없어 부친의 눈 밖에 난 자식이였다.) <박완서, 미망>

구성지다: 천연스럽고 구수하며 멋지다. (특별한 억양을 붙여 꼬리를 길게 늘리며 외우는 노인의 음성은 엄숙하고 구수하게 들렸다.) <한무숙, 어둠에 갇힌 불꽃들>

구순하다: 서로 사귀거나 지내는 데 사이가 좋아 화목하다. (새사람 들어와서 모처럼 구순해진 집안에 평지풍과 일으키지 말게.) <박완서, 미망>

안명옥(시인·고양애고 문예창작반 강사)

논술의 자신감 이 책은 꼭 읽어야 해

김동인 작 '붉은 산'

1932년 <삼천리> 4월호에 발표된 단편소설로 민족주의적 주제를 담고 있어요. 1인칭 관찰자 기법과 사실주의적 기법으로 식민지 시대 만주 이주민들의 고통스런 생활상과 한 떠돌이 인간의 민족애를 그린 작품이에요. 작품에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사람 즉 화자(話者)는 '여'이고 주인공은 '삼'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내지요.

의사인 '여'가 만주를 돌아다니다가 들른 **촌에서 겪은 일이다. 조선 소작인들만 이십여 호 모여 사는, 비교적 평화스런 동네인 그 마을에 '삼'이란 별명으로 불리는 정익호가 들어온다. 출신도 고향도 알 수 없는 그는 생김새나 행동 모두가 지극히 불량하고 난폭하여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를 미워한다. 너무나 난잡한 패륜이어서 마을 사람들은 그를 마을에서 내쫓고자 하나,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그저 암적인 존재로만 대할 뿐이다. 그러나 '삼'은 태연하게 이 동네에 목게 된다.

'여'가 이 마을을 떠나기 전날, 송 철지라는 마을 노인이 소작료가 적다는 이유로 만주인 지주에게 얻어맞아 죽는 일이 발생한다. 마을 사람들은 분개할 뿐 누구 하나 앞장서서 송 철지의 복수를 하고자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여'는 의사라는 직업상, 송 철지의 시체를 검시하고 돌아오는 길

에 '삼'을 만나 송 철지의 죽음을 알린다. '삼'의 얼굴에 나타난 비통한 표정을 보게 된다.

다음 날 '삼'이 죽어 간다고 깨우려 온 마을 사람들과 함께 '여'는 눈살을 찌푸리며 동구 밖으로 달려간다. 동구 밖에 쓰러져 있는 '삼'의 입을 통하여 그가 혼자 몸으로 만주인에게 대항하다가 그렇게 되었음을 알게 된다.

'삼'은 '여'에게 붉은 산과 흰 옷이 보고 싶다고 애국가를 불러 달라고 한다. 광막한 겨울의 만주 벌 한편 구석에서 '삼'의 죽음을 애도하는 송철의 노래가 퍼진다. 그 속에서 '삼'은 숨을 거둔다.

소외된 자의 죽음은 '강한 저항정신'

붉은산과 흰옷, 민족애와 조국애상징

'삼'의 별명은 정익호. 초반부에서는 매우 교활하고 패륜이적인 부정적인 인물로 그려지고 있으나, 송 철지의 죽음을 계기로 마지막에 감동적인 민족애를 보여 주고 있어요.

이 작품은 '어떤 의사의 수기'라는 부제가 말해 주듯이 어떤 의사의 목격담을 적은 수기 형식으로 되어 있지요. 이러한 방법은 이 작품의 사실성 확보에 매우 효과적으로 기여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 작품은 비도덕적이고 몰염치한 인물인 '삼'까지도 송고한 민족정신을 구현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지요. 또한 그가 죽어 가면서 '붉은 산'과 '흰 옷'이 보고 싶다는 말을 남기는 대목은 이 작

품의 주제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지요.

'삼'은 고국을 떠나 유랑하는 우리 민족을 상징하고 있으며, 송 철지의 죽음은 만주에 흘러들어가 사는 우리 동포의 비극을 나타내죠. '삼'은 마음속으로만 비분강개할 뿐인 백의민족의 무기력함을 차지고, 만주인을 향하여 복수를 꾀하고 있어요. '삼'이 임종할 때 하는 말 중에서 '붉은 산'과 '흰 옷'이 보고 싶다는 것은 우리 국토와 겨레를 그리는 것으로 조국에 대한 애정과 향수를 나타내죠.

전체 작품의 약 절반 분량을 '삼'의 인간 됬됨이와 그에 대한 타인들의 태도를 서술하는 것에 할애하고 있어요. 이것은 뒤에서 '삼'이 보여 준 불발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의 의미를 더욱 뚜렷이 부각시키는 효과를 지니죠. 어떤 인간에게나 마음 속 깊숙한 곳에는 순수하고 송고한 인간애의 단면이 들어 있다는 것을 '삼'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게 하네요. 남의 나라에서 함께 불행하게 살아가는 동족에 대한 동포애, 나아가서는 떠나 온 조국 산하와 민족에 대한 애정과 향수로 발전되고 있지요.

붉은 산에 푸른 기운이 넘치는 날, 우리 민족의 광복과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조국에 대한 희망을 담고 있잖아요. 그러나 서술자인 '여'의 태도가 지나치게 방관자적 입장에 처해 있으며, 마지막 '삼'의 죽음 부분의 경우 전반적으로는 감동적이라 할 수 있으나, 너무 낭만적인 대화로 처리한 듯하여 아쉬움도 남지만요. 아무튼 이 소설을 읽으면서 우리의 민족애를 한 번 되돌아보게 하는 것 같아요.

안명옥(시인·고양애고 문예창작반 강사)

우리들 생각

'우리들의 생각' 코너는 사찰 게시판에 올라온 어린이,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은 공간입니다. 불교계에 비하는 점, 입사상담과 우문제 등 주제·형식을 벗어나 여러분의 직접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접수 e-메일:rolling@paran.com)

술주정이 심한 아빠가 너무 싫어요

요즘 부모님 얼굴도 보기 싫고 특히 우리아빠요 술주정이 너무 심해요. 공포스러운 정도입니다. 실망을 넘어서 아버지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못 참겠어요. (ID: rurarun)

힘들때일수록 침착하고 냉정함을 잃지마세요

아버지께서 집안의 중심축으로써의 그 몫을 다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이었을 텐데 이와는 반대로 가정을 돌보지 않고 술로 생활하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으로 힘들었을 거예요.

입사적으로 감정이 폭발할 때에는 그 상황 속에서 아버지와 계속적으로 마주대하기 보다는 그 속에서 벗어나 다른 행동을 통해 그 감정들을 발산하기를 바랍니다.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마음껏 소리 질러 분다거나, 운동을 통해 그 순간만큼은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한 가지 일에 몰두할 수 있다면 좀 전과 같은 상황에서, 다스리기 힘든 감정을 조금이나마 자유로워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힘든 일, 어려운 문제를 혼자만 짚어지고 가기보다는 주위의 친구나 삶의 경험이 풍부하고 그로 인해 충분한 도움과 조언을 나눠줄 수 있는 분을 찾아가 의논해 보세요. 좀 더 많은 사람의 의견과 도움이 더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족 전체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을 아버지에게 전가시키고 나머지 가족들이 뭉쳐서 아버지께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자신들이 갖는 고통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현재의 상황을 개선해 나가는 데 있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보다 적절하고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상담기관을 통한 도움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사이버청소년상담실)